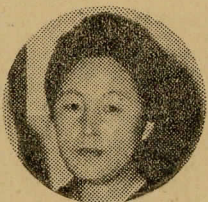


『家族制度와 女性의人間化』

朴英淑씨 YWCA水曜講座서 講演

가족법개정안이 나오자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장단점이 다각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날 三十一일 오후七시

朴英淑씨 (前)조선연세協 사무국장(는) 서울YWCA 수료강좌에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의人間化"란 연제로『이미一九二七년 勸友會창립



朴英淑씨

지 여성의 인간화는 사회의 기를며 나아가 인류사회의 구원이 되고 여성의 스스로 약자가 아니라 여성의 해방은 세계의 해방을 뜻한다』는 五十年前의 의지를 상기시켜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받았다.

차남자는 비인간적인 일의 주범에서 아직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있고 하루끼니 너무 많은 일을 가진 이웃이 너무 많은 요즘 여성의人間性인간화를 찾는다는게 여성의한 사람으로서 사치스런 생활이 아닌가하는 회의도 없는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나라가 족제도에서 오는 모순, 여성

에대한 비인간적인 위치는 배고픔과같은 절절한 문제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크게 형제 절은 이른 상류의 문제이며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이기한다면 절절적인 가족제도도 지속되고있는 형편이다. 그 최대의 가치는 경제적, 가족의 유지발전에 두고있다고 말할수있다. 서양은 부부가『결혼』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자식손손의 내려가 영원히 계속되는『父子關係』로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친인척에서 남자가 제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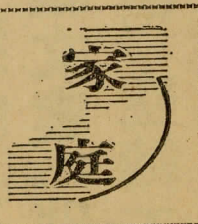
며 아들중에서도 맏아들이 제일이다. 여기서 차별하는 것이 생겨나 태어날때부터 출생으로 지닌『묘자』와 아들중에서도 큰아들을 맨 둘째 세제아들은 가계계승에 참가하지 못해왔다. 우리나라가 족관계승 부자관계의 대물배

孝·婦德은 平等·사랑과 共存해야

男性爲主의 倫理觀은 많은社會問題일으켜

現行家族法 모순많아 改正절실

은 효(孝)로 이어진다. 인간개인의예 충성하자는 아들은 자수성을 상실한다. 성절은 배척이되며 율리판에 인간관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의 원수는 곧 자식의 계도 원수가 된다는 이론이



성립되었다. 가계계승자는 지위가 높고 여자는 父權 남편 자식에게 입성을 의무해야 한다는 인습 때문에 여자는 가계계승자 곧 아들을 꼭 낳아야 하며 아들을 못낳으면 친지와의 불협이다. 아들을 낳는 지적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들이 많을수록 가계가 번성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부모자녀관계는 사회로 확대되어 사회의 문제점을 낳고있다. 가정에서의 복종이 곧 사회에서의 복종으로 일관된 여성이 사회에 나왔을때 남편 성배주의 권위주의에 예속되어있는것이다. 최근 홀아비가 적와 자식을 자기의 예속이라고 생각하여 사살하는 처사도 이것은 사회의 모순점의 발로다. 또 가족법 개

정안이 나오자 심론자장을 통해 미용양육을 해치는 문제라고 비난하는 지식인의 편이 나올수있는것도 이때문이다. 여성이 순종하고 효도해야 하며 정중함같은 훌륭한 우리나라적인 미용양육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적인 편중함과 공존해야하는 것이다. 한 문명의 안과 밖과같은 제도의것이다.

현가족법은 현실에 못미치고 있다.六十一개 여성단체가 힘을 합쳐 가족관계정면 여성의 인간화를 문제삼고 있는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만 바람직한 가족제도는 어떤것일까. 가족제도가족과 핵가족제도의 장점을 합친 가족을 들수있겠다. 효와 부덕만을 강요하지 말고『사랑』으로 가족관계가 맺어진다면 장손의 머느리라 할지라도 노예가 아니라 권위에 복종하는것이 아니라 가족간의『애』복종하며 봉사하는 가족관계가 이뤄질수 있을것이다.

이상적인 가정의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편중해지면 사회도 국가도 평등해지고 발전적인 한 조건의 이루어질 것이다. <洪鍾子>